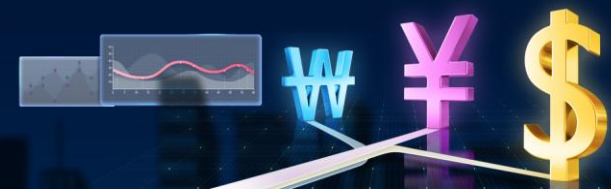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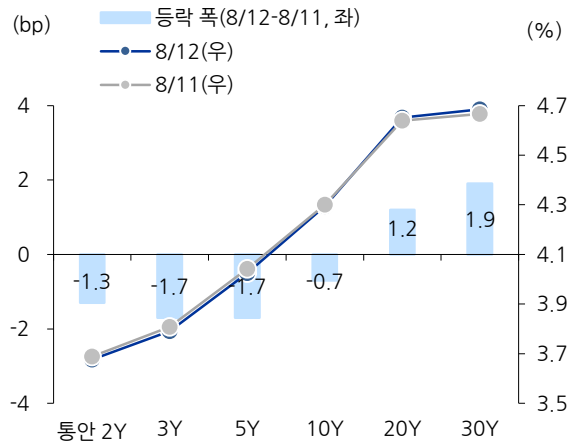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	8/12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791%	-1.7	12.2	83.8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294%	-0.7	14.4	90.9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50.3	49.3	48.1	43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3.31	6.0	-22.0	-213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5.78	5.0	-109.0	-714.0
	미국채 2년물	4.203%	-1.4	1.8	73.1
	미국채 10년물	4.695%	0.4	7.9	52.6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49.1	47.4	43.0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170%	0.5	4.2	31.5
	호주국채 10년물	4.995%	-0.9	8.9	24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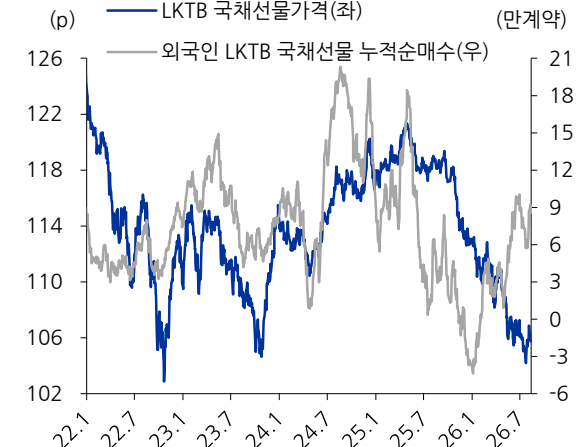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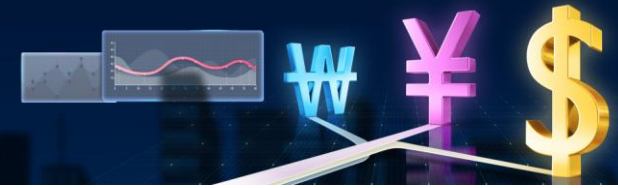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, 초장기물을 제외하고 소폭 강세 마감. 장중 한 때 10년 이상 장기물 금리 급등.
- 개장 초 전일 미국채 강세 영향으로 금리 하락 출발했지만 금일 밤 예정된 미국 CPI 및 최근 초장기물 금리 상승에 따른 손절 등으로 이내 상승 전환.
- 외국인, 3년 국채선물을 1만 계약 이상 순매도하며 전반적으로 투자심리 약화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보험권 혼조 마감.
- 우려했던 7월 CPI가 예상치에 준하게 발표. 발표 직후 금리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내 안도감 확대 및 9월 인상 베팅이 강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으면서 원레벨로 복귀.
- 어후 미국채 10년물 입찰도 무난하게 진행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 별다른 영향력 없었던 가운데 보험권에서 마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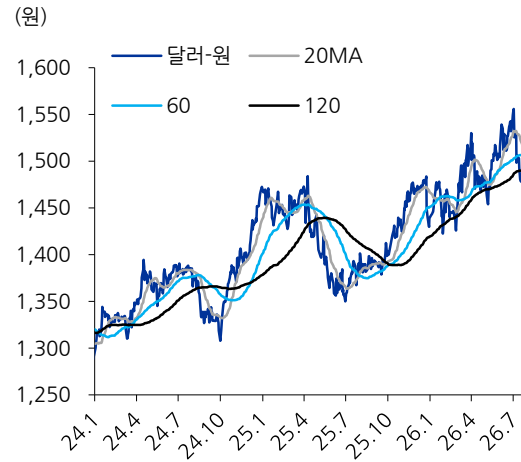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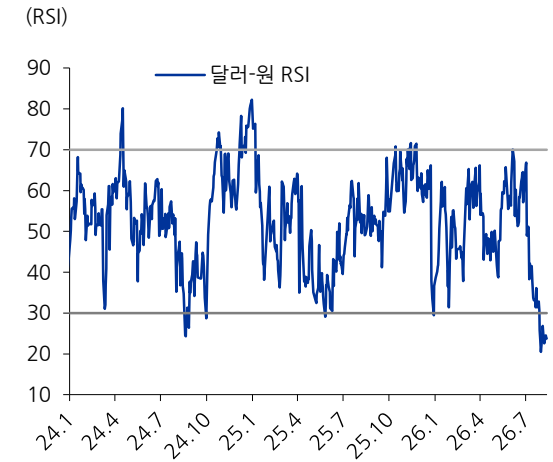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8/12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15.70	0.0%	-0.6%	-1.6%
	달러지수	99.97	0.2%	0.3%	1.7%
	달러/유로	1.15	-0.1%	-0.2%	-1.9%
	위안/달러(역외)	6.75	0.0%	0.0%	-3.4%
	엔/달러	159.43	0.1%	1.1%	1.8%
	달러/파운드	1.35	-0.1%	0.2%	0.2%
	헤알/달러	5.18	0.0%	1.1%	-6.1%
상품	WTI 근월물(\$)	83.27	0.1%	10.7%	45.0%
	금 현물(\$)	4,408.28	0.9%	3.8%	2.1%
	비트코인(\$)	63,455	-0.2%	-2.5%	-27.8%
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美 CPI 발표 경계에 낮은 변동폭 보이며 -0.30원 하락한 1,415.70원 마감(야간 1,418.50원).
- 수출기업의 원화 환전 자금이 유입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+2.8조원 순매수하며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. 그러나 1,400~1,410원대 저가매수에 꾸준히 유입되며 달러-원 하단을 지지.
- 달러-원은 야간거래에서 주간종가 대비 +2.80원 상승한 1,418.50원에 마감. 美 헤드라인/근원 CPI가 예상 부합했음에도 중동 불확실성과 8월 물가 확인 심리가 영향.
- 7월 초부터 강해진 수출기업 달러 환전에 달러-원은 고점 대비 140원 가량 하락을 보였으나 저가매수세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음. 단기적으로 금일 발표되는 美 PPI와 중동 상황에 따라 변동성 보일 전망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美 CPI 예상 부합에도 중동 불안 반영하며 상승(DXY +0.2%).
- 美 7월 CPI는 +0.1%mom, +3.4%yoy, 근원 CPI는 0.2%mom, 2.5%yoy 상승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. 다만 자가주거비와 임대료가 전월비 0.3%씩 상승하고 의료서비스(0.6%), 항공료(2.2%) 상승 등 물가 불안 요인 남아있어 달러 하방 영향은 제한됨.
- 이후 달러는 중동 긴장감 반영하며 상승 전환. 튀르키예 매체가 미-이란이 60일간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나, 이란이 부인하면서 중동 불안 지속됨.
- 시장이 반영하는 9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60%(전주 46%)까지 상승. 다만 중동 갈등, 서비스물가 등 불안 요인 남아있어 물가 경계 지속되며 달러 하단 지지할 전망.